

그런 AIDS는 없다

편견(偏見, Prejudice) 어떤 사물·현상에 대하여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 사전에 나온 '편견'에 대한 정의이다. 분명히 명시되어있는 '적합하지 않은'이란 표현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든다. 우리가 에이즈 감염인에게 편견을 가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에이즈에 대한 무지가 원인이다. 무턱대고 편견을 바꾸겠다는 것보다 에이즈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려는 노력하는 마음만으로도 우리 마음 속 부끄러움에 대한 질책의 무게를 감할 수 있지는 않을까...

괜찮아? 너무 무리한 거 아니?

검사는 받아 봤어? 에이, 그래도 한 번 받아봐.

모르는 일이지.

꺼개도 같이 떠먹던데... 좀 씹씹해서 받아?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동료 PD들이 묻는다. 그들이 에이즈에 대해 무지한 걸까, 아니다. 내가 아는 한 그들도 평균 이상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찝찝함' 일 것이다. 옆에 앉은 사람이 연신 팔을 굽어대면 웬지 나도 따라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처럼 전염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웬지 '거시기' 한 느낌. 방송을 준비하는 내내 에이즈 문제의 핵심은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바로 그 '찝찝함'이 아닐까 생각했다. 찝찝함의 기원을 찾았다면 그 찝찝함을 지워내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처음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대한에이즈예방협회를 찾았다. 프로그램의 방향, 주의할 점 등 많은 조언을 들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만나시는 감염인에게 왜 에이즈에 걸렸는지 묻지 마세요. 이미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였다. 고개를 끄덕였다. 성관계가 AIDS 전파 경로의 거의 전부라

고 보면 사실 우문이자 필요 없는 질문인 셈이다. 그 정도는 이제 '상식'이다. 나는 많은 감염인을 만났고 한 번도 내 입으로 먼저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궁금해졌다. 저 사람은 왜 감염됐을까. 지극히 평범한 이웃의 모습을 한 이 사람은 대체 어쩌다 몸살 병에 걸렸을까. 편견을 끝내고 같이 시사를 하던 팀 사람들도, 방송이 나가고 감상평을 전해주는 동료들도 내게 묻는다. '근데 있잖아 그 사람은 뭐하다 에이즈 걸렸대? 그런 사람으론 안 보이던데, 멀쩡하게 말도 잘하고...'

나의, 동료들의, 그리고 궁극적으론 시청자의 질문일 수밖에 없는 의문. 멀쩡한 사람이 왜 AIDS에 걸렸을까? 이 질문 속에 숨겨진 의미는 어쩌면 명백하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은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는다. 뭔가 하자가 있는, 그렇고 그런 사람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천형(天刑)을 받을 리가 없다. 그들은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다. 선을 긋는 것이다. 선을 그어 성적 문란함으로 단죄받은 그들을 선 밖으로 밀어내고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것이알고싶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우리의 '상식'은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런데 찻찻하다. AIDS 과학은 우리의 인식 체계로 들어오는 순간 뒤뚱리고 왜곡된다. 그 왜곡 현상을 주관하는 이는 AIDS 바이러스라는 실체가 아니라 실제 없는 공포심이다. 하지만 과학으로 한 차례 걸러졌기에 우리의 골수에 박힌 공포가 그나마 '찻찻함'으로 전환된 게 아닐까 하는 게 요즘 내 생각이다. 과학적 지식마저 없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일초적 공포에 시달릴 것이니 이 찻찻함도 진보의 산물이라 본다면 너무 희망 섞인 전망일까. 아직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할 일도 분명 거기에 있을 것이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들만을 골라서 하늘이 죽음으로 벌하는 그런 질병. 그런 에이즈는 없습니다. MC 김상중의 마지막 호소는 어쩌면 제작자인 나 스스로를 향한 질책이자 다짐이었다.

질문1

1위 무분별한 성관계 52.8%. 전염병, 만성질환 10.2%

질문2

그렇다 52.2%. 아니다 16.8%

질문3

1위 윤락여성 55.0%. 누구나 4.8%.

설문 결과가 뜻하는 바는 간단하고 분명하다. 에이즈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전염성 질병이 아니라 성적으로 분란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늘의 징벌이므로 그들은 위로와 지지를 받아야 할 환자가 아니라 격리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차별도, 죽음까지도 본인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다. 불행히도 이런 가혹한 분석에서 제작자인 나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고백한다. 그래도 일반 시청자보다는 아무래도 강도가 좀 낮지 않을까 하는 게 그나마 위안이자 변명일 것이다. 에이즈가 이 땅에 상륙한 지 20년이 훌쩍 넘은 2009년에도 AIDS에 대한 편견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편견의 뿌리는 공포다. 한 개인의 건강과 도덕성을 동시에 파멸시키는 괴물. 에이즈에 감염된다면 병원 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이 11.4%,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사람이 6.4%에 이르는 설문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걸리면 그야말로 끝이라는 게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생각인 것이다. 그러니 일단 걸리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는가. 격리시켜 내 눈에 띄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답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다. 그리고 과학은 이미 정답을 내놓았다.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런데 찻찻하다. AIDS 과학은 우리의 인식 체계로 들어오는 순간 뒤뚱리고 왜곡된다. 그 왜곡 현상을 주관하는 이는 AIDS 바이러스라는 실체가 아니라 실제 없는 공포심이다. 하지만 과학으로 한 차례 걸러졌기에 우리의 골수에 박힌 공포가 그나마 '찻찻함'으로 전환된 게 아닐까 하는 게 요즘 내 생각이다. 과학적 지식마저 없는 사람이라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중

아직도 원초적 공포에 시달릴 것이니 이 찻찻함도 진보의 산물이라 본다면 너무 희망 섞인 전망일까. 아직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할 일도 분명 거기에 있을 것이다.

노숙 생활 끝에 자살까지 시도했다던 AIDS 감염인. 그를 만나기 전으로 잠시 시계를 되돌려본다. '일단 만나면 악수를 청하고 저녁식사를 꼭 같이 하자.' 사실 취재를 나가면 그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 어떤 대답을 이끌어낼까를 고민하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행동할까를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시청자에게 그런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악수해도, 같이 찌개를 먹어도 괜찮습니다'를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지만 악수는 몰라도 한 그릇에 같이 손가락을 담가야 하는 것에 내색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찻찻함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고백컨대 그날 그는 나와 한 그릇을 쓰지 않았다. 식탁 한 가운데 큼지막한 찌개 냄비를 두고 그는 부엌에서 따로 당신의 작은 그릇에 찌개를 떠왔다. 같이 들자고 여러 차례 권했지만 그는 끝내 손가락을 담그지 않았다. 그의 작은 그릇에 담긴 찌개가 분명 동이 났는데도 그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다. 내 마음속 찻찻함을 그에게 들킨 것 같아 나는 한없이 부끄러웠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들만을 골라서 하늘이 죽음으로 벌하는 그런 질병. 그런 에이즈는 없습니다. MC 김상중의 마지막 호소는 어쩌면 제작자인 나 스스로를 향한 질책이자 다짐이었다. 4